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소비 형태와 행동에 대한 연구

장 재 선 · *오 성 천*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원대학교 제약식품계열

A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and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Jae-Seon Jang and *Sung-Cheon Oh*

Dept. of Food & Nutrition, Gachon University, Incheon 406-799, Korea

*Dept. of Food & Pharmacy, Daewon University College, Jecheon 390-702,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on the consumption of fast food for a balanced diet of university students.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such as gender, major, residing region, living expense, school grade, dieting, physical activity,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on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were analyzed by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The analysi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in the consumption of different types of fast food depending on different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as follows : hamburger by major, physical activity and alcohol consumption; chicken by school grade, physical activity and alcohol consumption; spaghetti by gender and smoking. Groups of different majors and school grad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in response to a question "Have you ever eaten fast food for regular meals?". The choice of fast food types based on taste and price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majors and gender. Different groups with different majors and dieting experience appeared to think significantly differently about fast food. In response to a question "Has the consumption of fast food changed your diet style" different groups of different majors and physical activit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ast food choices revealed that fast food is chosen significantly differently depending on gender and majors ($p<0.05$). The purchase of fast food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gender, diet, physical activity, experience of fast food and consumption of fast food for regular meals ($p<0.05$).

Key words: fast food, balanced diet, consumption patterns, significant differences

서 론

대학 시절의 식습관이나 활동 습관이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성인기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Song 등 1998), 아르바이트, 과제, 다양한 수업시간, 동아리 등의 과외 활동으로 인해 시간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전날 과다한 음주 등의 이유로 아침을 결식하여 간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의 식생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Ko MS 2007). 또한, 대학생들은 경제력이 제

한되어 식품을 선택할 때 값이 싸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기호 위주의 식품을 선택하므로 불량한 영양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Chung 등 1982). 그리하여 올바르지 않은 식생활은 영양 과잉 또는 영양 부족 등 영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식행동은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Kim & Lee 2006).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햄버거, 치킨, 피자, 프라이드 포테이토 등으로 육류나 기름진 음식이 많아 편중된

* Corresponding author: Sung-Cheon Oh, Dept. of Food & Pharmacy, Daewon University College, Jecheon 390-702, Korea. Tel: +82-43-649-3470, Fax: +82-43-649-3470, E-mail: osc5000@mail.daewon.ac.kr

영양 섭취 현상을 유발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의 부족, 고열량, 고지방, 고염식의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건강한 식생활 영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Lee JS 2007). 또한 제한된 식품 가지 수, 저영양 밀도와 열량필요량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1인분의 양의 표준화, 저영양 밀도 등으로 인한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Ries CP 1975), 패스트푸드가 열량 비율이 높고 전반적으로 포화지방산과 나트륨 함량이 높으며, 과일, 채소 및 전곡 음식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나트륨 함량을 저하시키거나, 대체물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Appledorf & Kelly 1979).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에서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로 구성된 햄버거 세트 메뉴의 열량은 659~1,065 kcal로, 햄버거 세트의 나트륨 함량은 675~1,693 mg으로 성인 여자 20~29세의 1일 열량권장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나트륨 일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 기준치 3,500 mg과 비교해 19~48%를 차지해 과다한 염분 섭취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특정 업체의 햄버거의 포화지방산이 기준치의 140%, 콜레스테롤이 92%를 함유하고 있었고, 피자의 경우 단백질이 기준치의 130%, 포화지방산 함량이 57%, 콜레스테롤 함량이 24%로 나타났다(Kim SH 2005). 패스트푸드의 조리법 자체도 발암물질인 Heterocyclic amines(HCAs)의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Kim SH 2003), 또한 외국 경우 감자칩 1봉지에 아크릴아마이드가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치의 500 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국내 시판 중인 프렌치 프라이 300~1,600 ppb, 감자칩 900~170 ppb가 검출되었다. 이 정도의 섭취가 즉각적인 건강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패스트푸드는 그 위험성에 더 노출되어 있다(Kim SH 2003). 최근 대학생 대상의 패스트푸드 이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이용 실태 조사로 패스트푸드 이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Han MJ 1992; Kim HG 1996; Shin & No 2000; Yoo 등 2000; Kim 등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 소비 형태를 알아보고, 패스트푸드 소비와 관련 요인인 성별, 전공별, 거주지별, 한 달 용돈별, 학년별, 다이어트 여부, 운동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등의 변수와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소비 절제 및 균형된 식생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인천·경기지역 대학생 학년별 각각 100명씩 선정하여 자기기록식 설문지(self-administering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4~5월에 실시하여 400부 무

작위 배포한 설문지 중 34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자료 14부를 제외하고, 총 334부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Park 등 2005; Choi ES 2010; Kim KM 2009; Kim YA 2011)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생활 실천조사, 패스트푸드 소비 형태 및 이에 관련 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의 통계 처리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version 21)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생활실천, 패스트푸드 소비 형태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스트푸드 소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및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전공별, 패스트푸드 이용, 식사대용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패스트푸드의 섭취 이유, 선택 이유, 구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p < 0.05$, $p < 0.01$ 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생활 실천 양상

Table 1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생활 실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대학생 전체 334명으로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 결과, 성별로는 남자 77명(23.1%), 여자 257명(76.9%)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97명(29.0%), 2학년 83명(24.9%), 3학년 68명(20.4%), 4학년 86명(25.7%)으로 나타났다. BMI는 저체중, 정상군, 과체중이 각각 19.3%, 63.5%, 17.22%로 정상체중이 가장 많은 반면, 저체중과 과체중 학생의 비율이 낮았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건강생활 실천 양상을 알아본 결과, 다이어트 경험은 있다 218명(65.3%), 없다 116명(34.7%)으로 나타났고, 운동 여부는 있다 71명(21.3%), 없다 263명(78.7%)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여부는 하고 있다 19명(5.7%), 하고 있지 않다 315명(94.3%)으로 나타났고, 음주 여부는 예 233명(69.8%), 아니다 101명(30.2%)으로 나타났다.

2. 패스트푸드 소비 형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

Table 2는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소비 형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패스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of survey group

Section	Spec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77	23.1
	Female	257	76.9
BMI	Low weight	65	19.3
	Normal	214	63.5
Nutrition major status	Over weight	58	17.2
	Major	175	52.4
School year	Non-major	159	47.6
	Year 1	97	29.0
	Year 2	83	24.9
	Year 3	68	20.4
Experience of diet	Year 4	86	25.7
	Yes	218	65.3
Exercise	No	116	34.7
	Yes	71	21.3
Smoking	No	263	78.7
	Yes	19	5.7
Drinking	No	315	94.3
	Yes	233	69.8
	No	101	30.2

트푸드 중 햄버거는 식품영양 전공별, 운동 여부별, 음주 행위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전공별 햄버거 이용 비율은 월 1회 섭취한다는 응답이 영양 전공 학생 51.4%, 비전공 학생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월 2~3회가 영양 전공 학생은 19.4%, 비전공 학생은 35.8%로 나타났다. 전혀 섭취하지 않는 학생 비율은 영양 전공 학생 16.6%, 비전공 학생 6.3%으로 햄버거 이용에 대한 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운동 유무별 햄버거 이용 비율은 월 1회 섭취한다는 응답이 운동을 하는 학생 47.9%,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월 2~3회는 운동을 하는 학생 23.9%,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 28.1%로 나타났다. 전혀 섭취하지 않는 비율은 운동하는 학생이 19.7%,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 9.5%으로 햄버거 이용에 대한 운동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 유무별 햄버거 이용 비율은 월 1회 섭취한다는 응답이 음주를 하는 학생 46.8%, 음주하지 않은 학생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월 2~3회는 음주하는 학생 27.5%, 음주하지 않는 학생 26.7%로 나타났다. 전혀 섭취하지 않는 비율은 음주하는 학생 9.0%, 음주하지 않는 학생 17.8%으로 나와, 햄버거 섭취에 따른 음

주를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 보였다.

패스트푸드 중 치킨은 학년별, 운동 여부별, 음주 행위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치킨의 경우, 학년별 이용 비율은 1학년과 2학년은 월 2~3회가 각각 40.2%,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과 4학년은 월 1회 섭취한다는 응답이 각각 39.7%,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섭취하지 않는 학생 비율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10% 미만으로 나와 치킨 이용에 대한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운동 유무별 치킨 이용 비율은 운동을 하는 학생은 월 1회 정도가 47.9%,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은 월 2~3회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섭취하지 않는 학생 비율은 운동하는 학생이 4.2%,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 3.0%으로 나와 치킨 이용에 대한 운동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 행위별 치킨 이용 비율은 월 2~3회가 36.9%, 음주하지 않은 학생은 월 1회로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섭취하지 않는 비율은 음주하는 학생 1.3%, 음주하지 않는 학생 7.9%으로 나와 치킨 이용에 대한 음주를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 중 샌드위치는 성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성별 샌드위치 이용 비율은 남학생은 전혀 섭취하지 않음이 36.4%, 여학생이 월 1회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월 1회가 28.6%, 여학생은 월 2~3회와 전혀 섭취하지 않음이 모두 19.8%로 샌드위치 이용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 중 스파게티는 성별, 흡연 여부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성별 스파게티 이용 비율은 월 1회 섭취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이 36.4%, 여학생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전혀 섭취하지 않음이 31.2%, 여학생은 월 2~3회가 23.0% 순으로 나와 스파게티 이용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 유무별 스파게티 이용 비율은 흡연하는 학생은 전혀 섭취하지 않음이 42.1%, 흡연하지 않은 학생은 월 1회가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흡연하는 학생은 월 1회가 36.8%, 흡연하지 않는 학생은 월 2~3회가 24.1%로 나타났다. 스파게티 이용에 대한 운동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im 등(2009)의 패스트푸드 종류에 따른 선호도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치킨이 3.52점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이스크림 3.42점, 피자 3.28점, 떡볶이 3.22점, 포테이토 3.20점, 라면 3.19점, 스파게티 3.19점, 햄버거 3.31점, 돈까스 3.11점, 샌드위치 3.11점, 자장면 3.04점, 튀김 3.03점, 도넛 2.89점 순으로 나타나, 도넛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3점대의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바 본 연구 결과, 치킨 3.03점, 즉석김밥 2.98점, 떡볶이 2.96점, 햄버거 2.48

Table 2. Differences in fast food consumption by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ife style

Section	Specification	Hamburger (time/month)					χ^2	Score
		Never	Once	2~3	4~5	More than 6		
Major	Yes	29(16.6)	90(51.4)	34(19.4)	13(7.4)	9(5.1)	17.318*	
	No	10(6.3)	69(43.4)	57(35.8)	15(9.4)	8(5.0)		
Exercise	Yes	14(19.7)	34(47.9)	17(23.9)	6(8.5)	0(0.0)	9.946*	2.48
	No	25(9.5)	125(47.5)	74(28.1)	22(8.4)	17(6.5)		
Drinking	Yes	21(9.0)	109(46.8)	64(27.5)	21(10.3)	15(6.4)	10.935*	
	No	18(17.8)	50(49.5)	27(26.7)	4(4.0)	2(2.0)		
Section	Specification	Fried chicken (time/month)					χ^2	Score
		Never	Once	2~3	4~5	More than 6		
School year	Year 1	3(3.1)	28(28.9)	39(40.2)	13(13.4)	14(14.4)	26.827*	3.03
	Year 2	1(1.2)	18(21.7)	27(32.5)	19(22.9)	18(21.7)		
	Year 3	1(1.5)	27(39.7)	25(36.8)	7(10.3)	8(11.8)		
	Year 4	6(7.0)	37(43.0)	26(30.2)	12(14.0)	5(5.8)		
Exercise	Yes	3(4.2)	34(47.9)	19(26.8)	9(12.7)	6(8.5)	10.205*	
	No	8(3.0)	76(28.9)	98(37.3)	42(16.0)	39(14.8)		
Drinking	Yes	3(1.3)	67(28.8)	86(36.9)	39(16.7)	38(16.3)	19.964*	
	No	8(7.9)	43(42.6)	31(30.7)	12(11.9)	7(6.9)		
Section	Specification	Sandwich (time/month)					χ^2	Score
		Never	Once	2~3	4~5	More than 6		
Gender	Male	28(36.4)	22(28.6)	18(23.4)	6(7.8)	3(3.9)	12.176*	2.31
	Female	51(19.8)	118(45.9)	51(19.8)	20(7.8)	17(6.6)		
Section	Specification	Spaghetti (time/month)					χ^2	Score
		Never	Once	2~3	4~5	More than 6		
Gender	Male	24(31.2)	28(36.4)	20(26.0)	5(6.5)	0(0.0)	22.235*	2.33
	Female	29(11.3)	138(53.7)	59(23.0)	19(7.4)	12(4.7)		
Smoking	Yes	8(42.1)	7(36.8)	3(15.8)	1(5.3)	0(0.0)	10.764*	
	No	45(14.3)	159(50.5)	76(24.1)	23(7.3)	12(3.8)		

* $p < 0.05$.

점, 감자튀김 2.44점, 피자 2.37점, 스파게티 2.33점, 샌드위치 2.31점으로 나타나, 대학생인 경우 전체적으로 패스트푸드가 이용도는 높음을 알 수 있는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3. 패스트푸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Table 3은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소비 형태와 관련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식사대용, 패스트푸드 선택 기준, 영양 균형 인식, 식생활 변화, 패스트푸드 선택에 영향 요인에 대한 전공별, 성별, 학년별, 운동 여부별, 다이어트 여부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패스트푸드의 인식에서 식사대용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는 거의 문항에서 전공별, 학년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전공 학생 82.3% 비전공 학생 95.6%가 식사대용으로 패스트푸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식사대용으로 섭취한 경험이 없다에 전공 학생 17.7%, 비전공 학생 4.4%로 비전공 학생이 패스트푸드를 식사대용으로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별로 보면 식사대용으로 패스트푸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에서 1학년이 95.9%, 2학년 73.5%, 3학년이 89.7%, 4학년이 94.2%로 식사대용으로 섭취한 경험이 없다에서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선택 기준에서 맛으로 선택한 경우, 전공 학생은 58.9%, 비전공 학생은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으로 선택하는 경우 전공 학생은 14.9%, 비전공 학생은 18.2%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살펴보면 맛

Table 3. Differences in the consideration of fast foo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ife style

Section	Specification	Major		Year			
		Major	Non-major	Year 1	Year 2	Year 3	Year 4
Meal replacement	Yes	144(82.3)	152(95.6)	93(95.9)	61(73.5)	61(89.7)	81(94.2)
	No	31(17.7)	7(4.4)	4(4.1)	22(26.5)	7(10.3)	5(5.8)
χ^2		14.641*(0.000)		26.622*(0.000)			
Section	Specification	Major		Gender			
		Major	Non-major	Male	Female		
Selection criteria of fast food	Taste	103(58.9)	115(72.3)	41(53.2)	177(68.9)		
	Nutrition	17(9.7)	2(1.3)	3(3.9)	16(6.2)		
	Portion	26(14.9)	7(4.4)	10(13.0)	23(8.9)		
	Price	26(14.9)	29(18.2)	19(24.7)	36(14.0)		
	Friend	3(1.7)	3(1.9)	4(5.2)	2(0.8)		
	Advertisement	0(0.0)	2(1.3)	0(0.0)	2(0.8)		
	Other	0(0.0)	1(0.6)	0(0.0)	1(0.4)		
χ^2		26.798*(0.00)		15.386*(0.031)			
Section	Specification	Major		Gender			
		Major	Non-major	Male	Female		
Recognition of nutrition balance	High calories to gain weight			93(53.1)	103(64.8)	144(66.1)	52(44.8)
	Ideal for meal replacement			18(10.3)	3(1.9)	16(4.3)	5(6.3)
	Good for health as contains vegetable and meat			16(9.1)	3(1.9)	10(4.6)	9(7.8)
	Bad for health as lots of MSG and fat			48(27.4)	50(31.4)	48(22.0)	50(43.1)
χ^2				19.438*(0.000)		19.729*(0.000)	
Section	Specification	Major		Year			
		Major	Non-major	Year 1	Year 2	Year 3	Year 4
Influence factor for selection	Mass communication	51(29.1)	73(37.1)	40(41.2)	15(18.1)	24(35.3)	45(52.3)
	Internet	18(10.3)	11(8.7)	4(4.1)	11(13.3)	12(17.6)	2(2.3)
	Family	12(6.9)	7(5.7)	5(5.2)	66(7.4)	5(7.4)	3(3.5)
	Friend	90(51.0)	62(45.5)	46(47.7)	49(59.0)	25(36.8)	32(45.5)
	Other	4(2.3)	6(3.0)	2(2.1)	2(2.9)	2(2.9)	4(3.0)
χ^2		11.727*(0.020)		37.069*(0.000)			

* $p < 0.05$.

으로 선택한 경우 남학생은 53.2%, 여학생은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으로 선택한 경우 남학생은 24.7%, 여학생은 14.0%로 나타나 패스트푸드를 선택할 때 대학생들은 맛과 가격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인식에서 전공별, 다이어트 경험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열량이 높아 살이 찌는 것에서 영양 전공 학생은 53.1%, 비전공 학생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미료와 기름기가 많아 건강에 나쁠 것 같다에서 영양 전공 학생은 27.4%, 비전공 학생은 31.4%로 나타나,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학생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이어트 유무별 열량이 높아 살이 찌는 것에서 다이어트 경험 학생은 66.1%, 경험이 없는 학생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미료와 기름기가 많아 건강에 나쁠 것 같다에서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0%, 경험이 없는 학생은 43.1%로 나타나, 패스트푸드가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 요인인 경우 전공별, 학년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매스컴의 영향이라

응답한 영양 전공 학생은 29.1%, 비전공 학생은 37.1%로 나타났다. 친구라고 응답한 영양 전공 학생은 51.0%, 비전공 학생은 45.5%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친구의 영향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은 친구라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7%, 59.0%, 36.8%로 나타난 반면, 4학년은 매스컴이라 응답한 비율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패스트푸드 선택과 구매에 미치는 영향 요인

Table 4는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스트푸드 선택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성별, 전공별, 패스트푸드 이용, 식사대용 경험 유무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성별에 따른 패스트푸드 섭취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에서 남학생은 3.68점, 여학생은 3.89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가격이 적당해서에서 영양 전공 학생은 3.16점, 비전공 학생은 3.45점, 영양이 풍부해서에서 영양

전공 학생은 1.70점, 비전공 학생은 1.87점, 종류가 다양해서에서 영양 전공 학생은 2.74점, 비전공 학생은 3.15점, 먹기 간편해서에서 영양 전공 학생은 3.58점, 비전공 학생은 3.7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또한 맛이 좋아서에서 패스트푸드 이용 학생은 3.90점, 비이용 학생은 3.05점, 가격이 적당해서에서 패스트푸드 이용 학생은 3.32점, 비이용 학생은 2.91점, 음식이 빨리 나와서에서 패스트푸드 이용 학생은 3.40점, 비이용 학생은 2.95점, 먹기 간편해서에서 패스트푸드 이용 학생은 3.72점, 비이용 학생은 3.05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식사대용 경험 여부에 따라 맛이 좋아서에서 식사대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3.88점, 경험이 없는 학생은 3.55점, 가격이 적당해서에서 식사대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3.35점, 경험이 없는 학생은 2.34점, 양이 많아서에서 식사대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2.90점, 경험이 없는 학생은 2.34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내었다.

Table 5는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구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스트푸드 구매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성별, 다이어트별, 운동 여부별, 패스트푸드 이용, 식사 대용 경험 유무별에서 유

Table 4. Factors affecting on the choice of fast food¹⁾

Section	Gender		Major		Eating fast food		Meal replacement	
	Male	Female	Major	Non-major	Yes	No	Yes	No
Good taste	3.68±0.895*	3.89±0.735*	3.83±0.840	3.86±0.707	3.90±0.726*	3.05±1.046*	3.88±0.752*	3.55±0.921*
Proper price	3.18±0.928	3.33±0.854	3.16±0.889*	3.45±0.832*	3.32±0.868*	2.91±0.868*	3.35±0.863*	2.87±0.844*
Good portion	2.73±0.898	2.87±0.807	2.75±0.872	2.93±0.772	2.87±0.807	2.45±1.057	2.90±0.832	2.34±0.627*
Nutritious	1.82±0.739	1.77±0.794	1.70±0.754*	1.87±0.801*	1.76±0.766	2.05±0.950	1.79±0.778	1.68±0.809
Varieties	2.84±0.974	2.96±1.022	2.74±1.061*	3.15±0.908*	2.96±1.006	2.59±1.054	2.96±1.004	2.74±1.057
Fast serving	3.43±1.019	3.36±1.014	3.34±1.081	3.41±0.936	3.40±1.000*	2.95±1.133*	3.38±1.011	3.37±1.051
Easy to eat	3.69±0.977	3.67±0.920	3.58±1.058*	3.79±0.758*	3.72±0.909*	3.05±1.046*	3.70±0.925	3.53±0.979
Convenient place to meet friend	3.00±1.000	3.19±1.016	3.12±1.110	3.18±0.899	3.16±1.012	2.95±1.0460	3.18±1.008	2.92±1.050

¹⁾ 1=not very, 2=not, 3=usually, 4=so, 5=very well, * $p<0.05$.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the purchase of fast food¹⁾

Section	Gender		Diet		Exercise		Eating fast food	
	Male	Female	Yes	No	Yes	No	Yes	No
Taste	3.19±0.586*	3.39±0.635*	3.35±0.574	3.34±0.724	3.37±0.623*	3.00±0.617*	3.36±0.600	3.26±0.828
Price	3.14±0.601	3.09±0.613	3.09±0.623	3.11±0.586	3.09±0.612	3.18±0.588	3.13±0.583*	2.89±0.768*
Calories	2.01±0.925*	2.33±0.832*	2.46±0.832*	1.88±0.793*	2.25±0.858	2.36±0.953	2.27±0.871	2.21±0.811
Nutrition	2.10±0.836	2.01±0.690	2.07±0.725	1.96±0.727	2.01±0.713	2.27±0.883	2.04±0.721	1.95±0.769
Service	2.48±0.736	2.45±0.717	2.46±0.712	2.46±0.739	2.45±0.725	2.55±0.671	2.47±0.726	2.39±0.679
Brand	2.69±0.799	2.54±0.707	2.56±0.724	2.59±0.747	2.58±0.726	2.41±0.796	2.58±0.732	2.47±0.725

¹⁾ 1=not very, 2=not, 3=usually, 4=so, 5=very well, * $p<0.05$.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성별에 따른 패스트푸드 구매시 영향 요인 중 맛의 경우 남학생은 3.19점, 여학생은 3.39점, 칼로리인 경우 남학생은 2.01점, 여학생은 2.33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이어트 유무별 칼로리에서 다이어트 경험학생은 각각 2.46점으로 나타났으며, 비경험 학생은 각각 1.88점, 2.21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이용 학생은 3.37점으로 비이용 학생 3.0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대용 경험 여부에 따라 가격에서 식사대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3.13점, 경험이 없는 학생은 2.89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내었다.

Kim & Cho(1994)과 Cho & Han(1996)의 연구 결과,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이유로 간편해서, 시간이 절약되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Kim YA(2011)의 연구 결과, 맛이 좋아서, 시간구애를 받지 않아서, 식사대용으로가 3.00점대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 결과 맛이 좋아서, 먹기 편해서, 가격이 적당해서, 음식이 빨리 나와서, 맛이 좋아서가 3.00점대로 나와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5. 패스트푸드의 소비, 선택, 구매간의 상관관계

Table 6은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 선택 이유, 구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스트푸드 종류별 모두 양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햄버거와 감자튀김의 상관계수 값이 0.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킨과 피자의 상관계수 값이 0.447로 나타났($p<0.01$). 이는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이용에서 섭취 장소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패스트푸드의 선택 이유별 상관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choice and purchase of fast food

Section	Hamburger	Chicken	Pizza	Sandwich	Frenchfries	Donut	Spaghetti	Gimbap
Hamburger	-							
Chicken	0.387*	-						
Pizza	0.397*	0.447*	-					
Sandwich	0.247*	0.235*	0.301*	-				
Frenchfries	0.635*	0.435*	0.377*	0.301*	-			
Donut	0.190*	0.163*	0.251*	0.215*	0.291*	-		
Spaghetti	0.209*	0.283*	0.376*	0.298*	0.359*	0.304*	-	
Gimbap	0.137**	0.266*	0.203*	0.339*	0.261*	0.236*	0.305*	-

Section	Good taste	Proper price	Good portion	Nutritious	Varieties	Fast serving	Easy to eat	Convenient place to meet friend
Good taste	-							
Proper price	0.179*	-						
Good portion	0.138**	0.506*	-					
Nutritious	-0.125*	0.073	0.209*	-				
Varieties	0.166*	0.206*	0.349*	0.263*	-			
Fast serving	-0.036*	0.217*	0.249*	0.142*	0.455*	-		
Easy to eat	0.146*	0.225*	0.262*	-0.052	0.334*	0.599*	-	
Convenient place to meet friend	0.147*	0.150*	0.204*	0.121**	0.288*	0.255*	0.366*	-

Section	Taste	Price	Calories	Nutrition	Service	Brand
Taste	-					
Price	0.396*	-				
Calories	0.076	0.191*	-			
Nutrition	-0.062	0.176*	0.505*	-		
Service	0.065	0.177*	0.145*	0.272*	-	
Brand	0.057	0.129**	0.044	0.166*	0.385*	-

* $p<0.01$, ** $p<0.05$.

관계를 살펴보면 ‘음식이 빨리 나와서’와 ‘먹기 간편해서’의 상관관계수 값이 0.59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격이 적당해서’와 ‘양이 많아서’의 상관관계수 값은 0.506, ‘종류가 다양해서’와 ‘음식이 빨리 나와서’의 상관관계수 값은 0.455, ‘먹기 간편해서’와 ‘친구를 만나기 편해서’의 상관관계수 값이 0.366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패스트푸드 구매에 영향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양과 칼로리의 상관관계수 값이 0.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맛과 가격은 0.396, 브랜드와 서비스가 0.385로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대학생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커서 영양과 칼로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이 좋은 식사대용으로, 패스트푸드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로 패스트푸드의 선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 절제 및 균형된 식생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의 소비 형태를 알아보고, 패스트푸드의 소비에 관련 행동요인인 성별, 전공별, 거주지별, 한 달 용돈별, 학년별, 다이어트 여부, 운동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등의 변수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전체 334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 77명(23.1%), 여자 257명(76.9%)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97명(29.0%), 2학년 83명(24.9%), 3학년 68명(20.4%), 4학년 86명(25.7%)으로 나타났으며, BMI는 저체중, 정상군, 과체중이 각각 19.3%, 63.5%, 17.22%로 정상체중이 가장 많은 반면 저체중과 과체중 학생의 비율이 낮았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건강생활 실천 양상을 보면 다이어트 경험은 ‘있다’ 218명(65.3%), ‘없다’ 116명(34.7%)으로 나타났고, 운동 여부는 ‘있다’ 71명(21.3%), ‘없다’ 263명(78.7%)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여부는 ‘하고 있다’ 19명(5.7%), ‘하고 있지 않다’ 315명(94.3%)으로 나타났고, 음주 여부는 ‘하고 있다’ 233명(69.8%), ‘하고 있지 않다’ 101명(30.2%)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패스트푸드 이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중 햄버거는 전공별, 운동 여부별, 음주 행위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치킨은 학년별, 운동 여부별, 음주 행위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샌드위치인 경우 성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스파게티인 경우 성별, 흡연 부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3.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패스트푸드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식사대용으로 ‘섭취 한 경험이 있는가’의 문항에서 전공별, 학년별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 < 0.05$). 패스트푸드의 선택 기준에서 맛과 가격으로 선택한 경우 전공별, 성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패스트푸드에 대한 인식에서 전공별, 다이어트 경험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패스트푸드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 요인인 경우 전공별, 학년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4. 패스트푸드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선택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성별, 전공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또한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구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구매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성별, 다이어트별, 패스트푸드 이용, 식사대용 경험 유무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5.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 선택 이유, 구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종류별 모두 양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햄버거와 감자튀김의 상관관계수 값이 0.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킨과 피자의 상관관계수 값이 0.447로 나타났다($p < 0.01$). ‘음식이 빨리 나와서’와 ‘먹기 간편해서’의 상관관계수가 0.59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격이 적당해서’와 ‘양이 많아서’의 상관관계수 0.506, ‘종류가 다양해서’와 ‘음식이 빨리 나와서’의 상관관계수 0.455, ‘먹기 간편해서’와 ‘친구를 만나기 편해서’의 상관관계수 0.366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영양과 칼로리의 상관관계수 값이 0.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맛과 가격은 0.396, 브랜드와 서비스가 0.385로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13-R149).

Reference

- Appledorf H, Kelly LS. 1979. Proximate and mineral content of fast food. *J Am Dietet Assoc* 74:35-49
- Cho CM, Han YB. 1996. Dietary behavior and fasts us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J Home Econ* 8:105-119
- Choi ES. 2010. Survey on knowledge about nutrition indications of processed food ingested as snacks and survey on actual ingestion of street food: Focusing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Ph.D. Thesis, Kyunghee Uni. Seoul. Korea
- Chung YJ, Lee JW, Kim MR. 1982. Menu pattern and management of student's cafeteria(I). *Korean J Nutr* 15:107-118
- Han MJ. 1992.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behaviors on fast food restaurants in Seoul area. *Korean J Dietaty Culture* 7:

91-96

- Jung YJ. 1984. Food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Nutrition* 17:10-19
- Kim HJ. 1996. A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and brand prefer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Ulsan. *Korean J Dietaty Culture* 11:131-141
- Kim KA, Cho SH. 1994. A survey on conscious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sing fast food restaurants in Kwangju. *J East Asian Soc Diet Life* 4:27-37
- Kim KM. 2009. A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patters and brand preterene of universty students in Ulsan. Ph.D.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 Kim KW, Shin EM, Moon EH. 2004. A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nutritional knowledge, food behavior and dietary intak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Diattetie Association* 10:13-24
- Kim MH, Lee YS. 2006. A study on the nutrient intake and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in Chungnam area.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7:143-158
- Kim SH. 2003. A study on labeling method for fast food and carbonated soft drinks. Korea Food and Nutrition Foundation. pp.77-115
- Kim YA. 2011. Fast food utilization and recognition survey on fast food nutrition labeling of university students around Gyeonggi partial area. Ph.D. Thesis, Kyunghee Uni. Seoul. Korea
- Ko MS. 2007. The comparison in daily intake of nutrients and dietary habits of college students in Busan. *Korean J Comm Nutr* 12:259-271
-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1. Nutrition Problem of Fast Food. p12
- Lee JS. 2007. A comparative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classified by age in Busan. *Korea J Community Nutrition* 12:534-544
- No SB, Shin YS. 2000.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Busan. *Korean J Dietaty Culture* 15: 287-293
- Park EJ, Kim KN, Cho JS. 2005. Dietary habits and nutrient intake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fast food consump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ongju area. *J Huwan Ecol* 9:165-178
- Ries CP. 1975. How nutritious are fast food meals. *Consumer Rep* 40:278-289
- Song YJ, Paik HY, Lee YS. 1998. Qualitative assessment of dietary intak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201-205
- Winkleby MA, Cubbin C. 2004. Changing patterns in health behaviors and risk factor related to chronic diseases 1990~2000. *AM J Health Promot* 19:19-27
- Yoo YS, Lee YH. 1995. A study on the nutrition knowledge, eating habits and nutritional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193-205
- You DR, Park GS, Kim SY, Kim HH, Lee SJ. 2000.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 Focused on college students in Taegu and Kyungbuk.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 27-40

접 수 : 2013년 5월 19일
 최종수정 : 2013년 5월 27일
 채 택 : 2013년 6월 4일